

# 발 건강이 근로자들의 건강

## 발을 보호해주는 (주)제이세븐 '안전양말'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ldhfree@safety.or.kr)

발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다. 또 발은 수많은 뼈 조각과 관절, 인대, 신경,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때문에 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발목부터 시작해 무릎, 골반, 허리, 척추, 목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상을 초래하여 몸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되며, 심할 경우 전신체형의 변형을 초래하면서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같이 어느 부위보다 중요하더라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쓴다고 해도 편하고 좋은 신발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만이 현장에서 널리 쓰일 뿐, 그 외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근로자들의 발 건강을 위해 나서고 있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화를 넘어 '안전양말'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보급시켜나가는 (주)제이세븐이다.

### 성공과 좌절을 맞본 전직 개그맨의 야심작

(주)제이세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말을 전문적으로 생산, 보급하는 업체다. 그동안 균용양말, 등산양말 등 생활 속 양말을 만들어왔지만, 이제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양말을 생산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안전양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래(48)씨다. 이름처럼 외모 역시 남다르게 보이는 그는 지난 1987년 MBC 개그콘테스트 동상에 입상했던 전직 개그맨이다. 최근 개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결투(멤버 정찬우, 김태균)를 발굴해낸 것도 그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경규, 서세원, 김정열 등과 함께 유명 개그맨 대열에 합류해있던 그는 성공기를 한창 달리던 1990년대 중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과감히 의류(내의)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패기도 IMF라는 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처음에 성공가도를 질주하던 사업을 한 순간에 잃은 만큼 낙담과 마음고생은 그 누구보다 컸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러다가 의류사업의 경험을 살려 '기능성양말'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2005년이다.

### 발냄새, 무좀, 각질... 7가지의 좋은 기능

양말사업에 뛰어든 그는 타 양말 제품과의 차별성으로 '기능성'을 내세웠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J7'이라는 브랜드다. 정 대표의 앞자를 딴 J에다가 "발냄새, 무좀, 습진, 각질, 발톱무좀, 하지정맥 등을 잡아주고 건강한 발을 유지시켜준다"는 7가지의 좋은 양말이라는 뜻을 담았다.

실제로 J7 양말은 천연 광촉 음이온 기술을 적용하여 항균 및 탈취 기능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국원칙외선 응용평가연구원 평가에서 항균(무좀, 습진, 발톱무좀)은 99.9%, 탈취(냄새)는 92% 정도가 잡히는 효과가 증명됐다.



정 이 래 대표

### 근로자의 안전은 발에서부터 시작

근로자들의 발이 편하면 일의 능률도 2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토끼를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건강은 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이세븐도 좀 더 질 좋은 제품, 좀 더 편안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진은 안전양말 2종류(회색과 남색)는 묶어서, 그리고 등산용양말은 따로 크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아무대나 괜찮습니다.

이들 기능이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의 여러 질병을 막아주어 발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발의 피로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기능성 양말은 음이온이라는 특수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선한 혈액이 신체 각 부위로 전달되게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걸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편안한 발의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초의 안전화 맞춤형 양말 개발

J7양말을 개발한 정 대표가 처음 타깃으로 삼은 것은 군인들이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군화를 신고 훈련, 행군하는 군인들에게 발냄새와 습진, 무좀 등은 매우 큰 고통이다. 정 대표는 이들에게 J7양말이 꼭 필요할 것이라 판단, 군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양말을 보급해나갔다. 처음 출시될 때만 해도 양말이 얼마나 좋겠냐고 하던 군부대관계자들도 이제는 J7양말만을 찾을 정도로 호응이 좋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레바논에 파병되어있는 동명부대에 J7양말이 공급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군인들 사이에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제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능성 양말에 무재해 로고와 안전이라는 표시를 넣어 ‘안전양말’이라는 컨텐츠를 개발한 것. 이 안전양말에는 균용, 등산용 양말에 있는 탈취, 항균 기능이 그대로 갖춰져 있다. 그리고 안전화 속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림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안전양말은 현재 조선소가 많은 거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 급속도로 확산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화가 일시적으로 발은 보호하지만 안전화 안에서는 뒹꾸치가 까지고, 발톱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발 냄새와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J7 안전양말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좌절을 모두 맞본 정이래 대표가 수년간 연구 고민한 끝에 내놓은 안전화 맞춤형 ‘안전양말’. 이제 산업현장에서 보호구의 하나로 널리 보급·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발이 한층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주)

